

2017 새 설계

전 동 평 영암군수

“대봉감·무화과 6차산업화…잘사는 농촌 만들기 박차”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만들어 나 가겠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9일 “2017년은 지난 2년 6개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암의 미래 백년을 준비하고, ‘신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시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전 군수는 특히 “올해는 선진복지의 롤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어르신 복지와 이미지를 기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지원 매수도 연 20대에서 28대로 대폭 늘렸다”면서 “특히 100원 택시와 1000원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특수 시책과 동시에 가로등과 CCTV 등을 확충해 교통 복지수준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또 “올해는 영암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4대 핵심발전산업을 꼭 성공시켜 전남 서부권의 핵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 군수는 이를 위해 벼 정선시설과 무화과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 군수는 “병풍 달마지쌀 골드와 무화과, 멜

목욕·이미용권 모든 어르신 지급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연내 설립

드론·자동차튜닝 성장동력 육성

론, 대봉감, 황토고구마, 영암배, 매력한우 등 영암농산물을 전국제일의 명품으로 육성해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20억원 규모의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올해 내에 준공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선진농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 군수는 이와 함께 올해를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의 원년으로 삼을 방침이다.

전 군수는 “우선 지역 대표 문화행사인 왕인문화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 국민가수 하춘화씨가 중심이 되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을 계기로 영암을 대중가요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안에 가야금데마공원 게스트 하우스를 준공하고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영암지역을 전남을 대표하는 체류형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또 “영암군정 씨름단을 통해 민속씨

름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018년 영암에서 열리는 전남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바둑 황제 조훈현 국수를 중심으로 바둑산업 육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전 군수는 “영암출신인 바둑 황제 조훈현 국수 기념관과 400억원 전액, 국·도비가 투자되는 세계바둑박물관을 건립해 600만 바둑인구가 몰려드는 바둑의 메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이 밖에도 올해는 미래 첨단산업인 드론·경비행기항공·자동차튜닝산업의 전진기지로 가꾸고, 주민밀착형 복지시스템을 완벽해 복지영암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약속도 내놔다.

여기에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조적 미래인재 양성과 영암을 ‘부채 제로’ 자치단체로 만들어 내는 것도 전 군수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군정 목표다.

전 군수는 지난해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국·도비 1000억원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국비만 25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을 유지했다”면서 “무화과 첫 재배 후 45년 만에 무화과산업특구 지정이라는 값진 결과물도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분야 대통령상

2017년 주요 역점 사업은

- ▲드론·경비행기·자동차튜닝산업 전진기지 구축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생명산업 발전
-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 육성 원년의 해
- ▲600만 바둑인구 몰려드는 바둑 메카 조성
- ▲주민밀착형 복지시스템 완비·지역인재 양성
- ▲‘부채 제로’ 자치단체 실현

수상에 이어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 3개 부문 수상 등 복지분야 16관왕의 대업을 달성했으며, 문화관광스포츠분야에서는 왕인문화축제가 대한민국 유망축제에 3년 연속 선정됐다”면서 “특히 2018년 제57회 전남도 체육대회를 사상 처음으로 영암에 유치하는 쾌거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이 외에도 “순수 국비와 도비만 400억원이 투자되는 매머드급의 세계바둑박물관과 100억 규모의 코리아트로트가요센터 건립 사업도 유지해 영암 문화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 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해였다”고 강조했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강진으로 겨울바다 여행 오세요

14~15일 놀토수산물시장 운영 매생이·굴 할인판매

‘2017 강진 방문의 해’에 첫 선을 보이는 강진 겨울바다 여행이 마량 놀토수산물시장과 함께 강진만, 마량미항 일대의 겨울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여행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한 최적지로 전남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가우도를 비롯한 아름다운 미항으로 유명한 마량의 놀토수산물시장, 오감통 음악창작소, 도암면 석문공원 사랑구름다리, 강진만 생태공원 등을 중심으로 오는 14~15일 이틀간 ‘강진 겨울바다 여행’ 행사가 열린다.

행사시간 동안 강진 청정해역의 최고 품질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고 살 수 있는 마량 놀토수산물시장이 문을 열며, 겨울이 제철인 매생이, 강진만 굴(석화), 감, 싱싱한 전복 등 수산물과 설명절에 쓰일 건어물 등을 시중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

이 밖에도 오감통복회, 소고기낙지비빔밥 등 풍성한 먹을거리와 깜짝 할인판매, 시기별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의

홍을 돋우는 토요일악회도 공연 일정을 잡고 있다.

한편 강진군은 행사 기간 동안 강진 바다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은 ‘스마트폰(SNS) 촬영대회’도 연다.

강진 방문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축제 현장 내 부스를 찾은 모든 방문객에게 사진 인화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강진 호평쌀 1kg)을 제공한다. 또 대회 후 좋은 홍보 사진 제공자를 선정해 총 7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상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가 어려운 경우 사전접수도 진행된다. 강진군 홈페이지(gangjin.go.kr)에서 ‘스마트폰촬영대회 사전접수’를 클릭해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아올 것”이라며 “그 시작은 강진 겨울바다 여행과 마량 놀토수산물시장으로 강진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로 희망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강진군 정부 3.0 추진 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5천만원 받아

강진군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년도 지자체 정부 3.0 평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 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35명의 민간 전문가로 ‘정부 3.0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해 지표별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내용은 4개 평가항목(정부3.0추진 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하

정부), 8개 세부지표(로 평가했다. 강진군은 정부 3.0 업무 추진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직원대상 정부3.0 직무교육 실시,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행사 참여 등 평가항목과 세부지표에 맞게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장흥군 내년도 산림소득 분야 사업 신청

산림작물생산·임산물 유통 등 20일까지 접수

장흥군은 “오는 20일까지 임산물의 활발한 생산 활동을 위한 ‘2018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업분야는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산림작물생산 분야 6개 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 등 임산물 유통분야 6개 사업, 임산물 재배단지 지원 사업,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이상기온 등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장·건조시설 및 관정시설,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품목 등을 확대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무취재본부장

새 얼굴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가 소득 증진”

강 형 구 농협장흥군지부장



“농산물 생산성과 판매 교섭력을 높여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강형구(51) 농협장흥군지부장은 9일 “관내 7개 농축협 조합들과 협력을 통해 농산물 유통체계 구조를 개선 장흥지역 농가 평균 소득 5000만원 달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또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6차 농업산업 활성화와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지부장은 무안출신으로 농협전남지역본부 경제지원팀장, 농촌지원팀장, 동순천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무취재본부장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